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현철해동지 서거 1돐에 즈음하여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현철해동지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5월 19일 신미리에국렬사릉을 찾으시였다.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이 동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다운 혁명가적품성과 고결한 인간미를 지니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그마한 가치나 사심도 없이 헌신한 혁명전사의 진실하고 결곡한 모습과 값높은 생을 회억하시며 현철해동지의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들이며 주체혁명이 낳은 특출한 충신원로인 현철해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나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시는 전사, 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로혁명가의 공적은 우리 당과 국가의 력사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며 현철해동지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애국렬사릉의 추모비앞에서 조국청사에 수놓아진 려사들의 고귀한 삶이 후세토록 존경과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천만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

— 한해전 잊지 못할 불멸의 화폭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

5월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과 날들로 뇌리에 깊이깊이 새겨진 달이다.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는 가장 존엄하고 엄숙한 시련의 시기가 도래했던 지난해 5월, 악성비루스의 류입이라는 현실앞에 누구나 불안과 초조감으로 심장이 얼어붙었던 그때, 날이 갈수록 이 땅에 차고넘친것은 령도자를 우리러 더치는 고마움과 걱정, 목소리였고 행복의 눈물이었으며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애국과 애도의 눈빛들이였다. 그 나날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다시없는 행운을 소중히 새겨주며 전설처럼 태어난 이야기들은 열매이며 펼쳐진 숭고한 화폭들은 또 그 열매였던가. 그중에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빛나는 삶을 누린 한 로전사에 대한 감동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엔 한생토록 잊지 못할 숭고한 사랑과 도덕의리의 화폭으로 또빛이 새겨져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총장, 김정일총장 수훈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5월 20일 오전 13시에 찾으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동지의 영결식이 5월 22일 오후 신미리에국렬사릉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움속에서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새우신 낮과 밤은 그 열매이며 결으신 길은 또 열매였던가. 온 나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고 심혈을 심혈을 쏟아부으시던 그 나날 조선로동당을 총직하게 받들어온 로전사를 잃은 큰사상실의 아픔까지 겪으셔야만 하셨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을 누구도 헤아릴수가 없었다. 그래서 TV화면으로 비쳐지는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을 우리러 인민들은 쏟아내려하는 눈물을 견잡지 못했다. 지금도 사람들은 심장에 새겨안고있다. 로전사의 생애를 두고 거들거들 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가슴뜨거운 말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존엄한 신군길을 생각할때면 우리 장군님의 그림자, 유능한 정치군사보좌관이 되어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총직하게 받들어온 현철해동지의 모습이 제일먼저 떠오른다고, 수령의 성스러운 력사속에 빛나는 혁명전사의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인생의 최고정화이라고, 로혁명가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가지만 현철해라는 이름은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것이며 그의 고귀한 넋과 정신은 날로 승상장구하는 우리 당의 위업, 위대한 우리 국가와 공화국무력의 눈부신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생할것이라고. 허나 사람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사랑하는 로전사의 생애를 한시라도 더 이어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얼마나 값고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울이시였는지. 그로써 얼마후 새로 나온 기록영화 《빛나는 삶의 품》 32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보고서야 수령께서 전사에게 부여하신 사랑과 정, 의리의 세계를 다스나마 알수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기록영화들을 볼 때마다 매번 커다란 감동을 받아왔지만 이번처럼 눈물을 많이 흘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의식을 잃은 혁명전사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그의 심장의 박동을 이어주시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피로움을 금치 못해 하시던 우리 총비서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은 이 가슴속에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새겨졌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혁명적정신과 의리의 세계는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가장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이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기록영화를 보고 러린 각계층 주민들의 목소리였다. 사랑과 의리! 이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가 력사의 갈피에 새겨져왔는가. 그러나 혁명전사의 생명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고 받으시고 모든 사업을 뒤로 미루시고 전사의 마지막길을 지켜주시는 그정신과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숭고한 동지애와 도덕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던 로전사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더 이어주시지 못하시겠지 그리도 피로우시여 함박을 꺾지새우시던 경애하는 그이, 전사의 령구를 몸소 메시고 한결음한결음 무겁게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 람홍색 공화국기에 소중히 감싸안아 전사의 마지막길을 바래워드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식어버린 로전사의 심장에 자신의 영원한 사랑을 부여주시려는듯 고인의 유해에 한줄한줄 흙을 얹어주시던 경애하는 그이, 떠나간 로전

사를 다시한번 뜨겁게 포옹하시던 비석을 힐끗 그리안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하고 숭고하신 모습을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으며 성장해온 로전사의 값높은 한생을 보여주는 기록영화의 매 장면들은 수령과 전사사이에서 이어지는 가장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감명깊게 안아보게 하는 잊을수 없는 순간순간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의리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은것인가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연설에서 혁명학원출신들 가운데에 당에 끌어들여 총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한 충신들이 수없이 많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현철해동지도 다름아닌 만경대혁명학원출신이라고 또다시 뜨겁게 추억해주신 사실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기념 련환모임에서 떠나간 전사의 생일을 잊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주시며 열렬한 사랑과 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대해 토로하던 로전사의 손녀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통하여 다시금 느꼈수 있다.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서거 1돐이 되던 지난 5월 19일 이 땅에서는 만사람을 감동케 하는 또 하나의 뜨거운 사랑과 의리의 전설이 새겨여졌다.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미리에국렬사릉을 찾으시고 그의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나라가 최악의 국난을 이겨낼 때에도, 국가방위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나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는 전사, 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묘소앞에서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던 자로운 아버지, 온 나라 인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이날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현철해동지 서거 1돐 추모대회도 엄숙히 진행되였다. 이것이 어찌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에겐 베풀어진 사랑과 믿음이었는가. 시련과 역경이 앞에 가로놓일수록 혁명적정신에 기초하여 더 굳게 단결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서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숭고한 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더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공화국에서 혁명의 1세로 불리우는 항일혁명투사들에 게 다짐하고 응시하는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주시며 그 들모두를 영생하는 삶으로



열어나갈 때에도 언제나 한번 잊으신적 없는 사랑하는 전사, 항상 곁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던 현철해동지의 모습을 보고 또 보시며 오래도록 묘소앞에서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던 자로운 아버지, 온 나라 인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 이날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현철해동지 서거 1돐 추모대회도 엄숙히 진행되였다. 이것이 어찌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에겐 베풀어진 사랑과 믿음이었는가. 시련과 역경이 앞에 가로놓일수록 혁명적정신에 기초하여 더 굳게 단결하고 그 위력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고서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숭고한 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더 묘소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공화국에서 혁명의 1세로 불리우는 항일혁명투사들에 게 다짐하고 응시하는 사랑을 끝없이 베풀어주시며 그 들모두를 영생하는 삶으로

빛내어주시는분도, 전쟁로병들을 혁명의 로세대, 영웅세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해마다 전승절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며 로병대원들에 몸소 참석하시여 추하연설도 해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분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고 불멸의 친필도 새겨주시는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시고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다고, 그런것만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희생된 인민군렬사들의 묘물에도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우리 당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망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임무수행 중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해병들의 묘소를 찾으시어 떠나간 용사들의 돌사전을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시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합장묘이기때문에 묘주가 따로 없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

고의 묘주가 없다는 법은 없다고, 용사묘에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들의 묘주는 최고사령관인 내대 경축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며 로병대원들에 몸소 참석하시여 추하연설도 해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분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에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라고 불멸의 친필도 새겨주시는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시고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다고, 그런것만큼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희생된 인민군렬사들의 묘물에도 응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우리 당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유망무명의 인민군렬사들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임무수행 중 장렬한 최후를 마친 해병들의 묘소를 찾으시어 떠나간 용사들의 돌사전을 마지막까지 다 돌아보시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합장묘이기때문에 묘주가 따로 없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

본사기자 유금주